2022년 가을학기
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

전체 주제:

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대로 그리스도를 배움으로
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안에서 생활함

메시지 7

그리스도 예수님의 속부분들 안에서 생활함으로
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안에서 생활함

(1)

그리스도 예수님의 속부분들 안에서 살고
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부분들 안에서 사시도록 허락해 드림

성경: 시 16:7, 아 5:14 하, 빌 1:8, 골 3:12, 딤후 3:4

- I. “내가 사람의 속부분과 마음을 살피는 이라는 것을 모든 교회들이 알게 될 것이다.” — 계 2:23 하.
- II.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안에서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속부분들 안에서 살아야 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부분들 안에서 사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한다 — 빌 1:8, 엡 4:16.
- III.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께서는 여러 기능들을 지닌 인간의 속부분들을 가지고 계셨고, 그리스도의 속부분들 안에서의 그분의 체험들은 그분의 사랑과 갈망과 느낌과 사상과 결정과 동기와 의도를 포함한 그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혼과 마음과 영 안에서의 체험들이었다 — 눅 2:49, 요 2:17, 마 26:39, 사 53:11-12, 42:4, 막 2:8.
 - A. 화목제물의 속부분은 그리스도의 속존재가 하나님께 부드럽고 작고 귀하다는 것을 상징하는데, 그리스도의 속존재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것이다 — 레 3:3.
 - B. 그리스도의 속부분들이 밤마다 그분을 가르쳤다 — 시 16:7 하, 사 50:4.
 1. 하나님께서 사람이신 그리스도께 조언해 주셨을 때, 그리스도의 속부분들은 그분께서 하나님을 접촉하시는 것을 통하여 그분을 가르쳤다 — 시 16:7.
 2. 그리스도의 속부분들은 하나님과 하나였다. 이것이 하나님-사람의 합당한 체험이다 — 빌 1:8.
 - C. “그이 배는 /청옥을 입혀 아로새긴 상아랍니다.” (아 5:14 하). 그리스도의 속부분들(배)은 하늘에 속한 분명한 이상(청옥, 비교 출 24:10) 아래 그분의 고난(아로새긴 상아)을 통해 자리 잡은 깊고도 부드러운 느낌으로 가득하다.
 - D. 유월절 어린양과 그 내장을 먹는 것은 그리스도의 속부분들 안에서 그분을 취하는 것을 상징한다 — 출 12:9, 빌 1:8.
- IV. 바울은 그리스도의 속부분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체험하는 사람이었다 — 빌 1:8, 2:5, 고전 2:16 하, 롬 8:6.
 - A. 바울은 그리스도의 속부분들 — 그분의 애정, 부드러운 긍휼, 동정심 — 에서까지 그리스도와 하나였다 — 빌 1:8.
 - B. 바울은 자신의 속부분들을 간직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속부분들을 자신의 속부분으로 취했다 — 엡 3:17.
 1. 바울은 그리스도의 생각뿐 아니라 그분의 내적 존재 전체를 취했다.
 2. 바울의 속 존재는 바뀌고 재배열되고 개조되었다.
 3. 바울의 속 존재는 그리스도의 속부분들로 재조성되었다 — 골 3:12.
 - C.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진실성 — 정직함, 신실함, 신뢰할 만함 — 이 바울 안에도 있었다 — 고후 11:10.

D.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사랑은 바울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, 곧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. 따라서 바울은 자신의 타고난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했다 — 고전 16:24.

V. 바울은 몸을 위한 그리스도의 느낌을 자기 자신의 느낌으로 취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안에서 살았다 — 빌 1:8.

A.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의 속부분들을 자신의 속부분들로 취했다 — 빌 1:8.

B. 바울과 같이 우리도 머리가신 그리스도의 느낌을 우리 자신의 느낌으로 취해야 한다.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안에서 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다 — 빌 2:1, 골 3:12.

VI. 그리스도를 사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속부분들 안에서 사는 것을 요구한다 — 빌 1:21 상, 8.

A. 바울은 그리스도의 속부분들을 체험했다. 바울은 성도들을 그리워할 때 그리스도의 속부분들 안에서 그분과 하나였다 — 빌 1:8.

B. 바울은 자신의 타고난 속존재 안에 있는 삶을 살지 않았다. 그는 그리스도의 속부분들 안에 있는 삶을 살았다.

C.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속부분들, 즉 그분의 부드럽고 섬세한 느낌 안에 있어야 한다 — 요 15:4 상.

D. 그리스도를 사는 것은 그분의 속부분들 안에 거하며 그분의 속부분들 안에서 그분을 은혜로 누리는 것이다 — 빌 1:7, 4:23.

VII.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안에서 살려면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인자한 속부분들을 입어야 한다 — 골 3:10-12.

A. 불쌍히 여기는 것은 다른 사람이 고난 중에 있을 때 그 고난에서 해방되기를 바라면서 그 고난을 깊이 인식하는 것이다 — 눅 6:36.

1. 불쌍히 여기는 것은 긍휼과 가깝지만 긍휼보다 더 깊고 더 섬세하며 더 풍성하다 — 눅 10:33-34.

2. ‘불쌍히 여김’이라는 말은 가련한 상태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내적인 애정을 보여주는 단어 중에서 가장 깊은 것이다 — 시 103:8, 약 5:11, 고후 1:3.

3. ‘불쌍히 여김’에 대한 헬라어는 다정다감한 사람의 마음에서 발원한 내적인 느낌을 가리킨다.

B. 인자함은 긍휼과 사랑에서 나오는 자상한 미덕이다. 이처럼 하나님은 인자하셔서,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— 딤후 3:4, 엡 2:7.

1. 그 영의 열매 중 하나는 인자함이다 — 갈 5:22.

2. 우리가 구원받고 다른 이들과 다르게 된 것은 바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— 딤후 3:4, 롬 2:4.

3. 사도 바울은 인자한 하나님의 사역자였으며,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머무르라고 분부한다 — 고후 6:4, 6, 롬 11:22.

4. 하나님께서는 “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인자하셔서 베풀어 주신 그분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다는 것을” 오는 시대 — 천년왕국과 영원 미래의 시대 — 에 보여주실 것이다 — 엡 2:7.

5. 사랑은 친절하며(고전 13:4), 우리는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하며,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같이 서로 용서해야 한다(엡 4:32).

VIII. “주님은 속부분의 진실성을 기뻐하시며” — 시 51:6 상.